



국어숙제

손형호

일범이와 나는 우리 집 책상에 마주앉아 숙제를 하고있었습니다.

수학숙제를 다하고 답까지 맞춰본 다음 우리는 국어숙제장을 펼쳐들었습니다.

일범이가 중얼중얼 소리내어 숙제문제를 읽었습니다.

《〈작은〉과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고 두단어가 다 들어가게 짧은 글을 지으시오.》

《큰.》하고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구, 귀구멍이야.》

일범이는 두손을 불에 덴듯 량쪽귀에 갖다대더니 다음과 같은 짧은 글을 제껴 지어냈습니다.

《나는 작은 소리로 숙제문제를 읽었는데 은철이는 내 귀청이 떨어지게 큰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뒤로 발랑 나동그라지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러자 일범이는 덩달아 웃더니 또 다른 짧은 글을 지어냈습니다.

《내가 짧은 글을 지어 작은 소리로 읽어보는데 은철이는 아주 큰소리로 웃었습니다.》

《아니야, 틀렸어.》

내가 소리치자 일범이는 큰 머리를 기웃기웃했습니다.

《왜? 〈작은〉, 〈큰〉 두단어가 다 들어갔는데.》

《체, 짧은 글을 그렇게 지으라면 유치원애도 짓겠다. 뜻이 깊게 지어야 한단 말이야.》

《뜻? 그럼 한번 뜻이 깊게 지어보렴.》

나는 일범이의 코등에 난 기미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창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책상위의 한 점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생

각해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키가 작은 아이들이지만 이제 나라를 위한 큰사람이 될 소년단원들입니다. 어때?》

《히야!》

일범이는 막 환성을 올리더니 서둘러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연필을 집는다는것이 내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몇자 뱅뱅 쓰더니 이상한듯 연필을 들여다봅니다.

《아이구, 바뀌었구나.》

나는 웃었습니다.

《덤빈다구야, 그런데 내가 지은 글을 네가 쓰면 어찌니?》

《그것도 바꾸자꾸나. 내가 지은걸 네가 쓰고... 아니, 그럼 안되지. 오, 너야 잘 짓는데 또 하나 얼른 생각해내렴.》

《안돼, 얼마나 힘들게 지은거라구.》

그러자 일범이는 땅바닥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하던것처럼 처음에는 내 코잔등을, 다음에는 창문을, 또 그다음에는 반들반들한 책상위의 한점을 이윽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짧은 글을 숙제장에 다 쓴 후에도 그애는 그렇게 멀뚱멀뚱 앉아있었습니다. 나는 미안한 생각이 들어 말했습니다.

《그럼 너도 이렇게 쓰렴.》

일범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숙젠 제힘으로 해야 하거던. 할수 없어. 너처럼 멋있게 짓진 못해도 난 내가 지은걸 쓸테야.》

일범이는 연필을 끄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건너다보니 이렇게 지었습니다.

《은철이는 뜻이 큰 좋은 글을 지어냈는데 나는 뜻이 작은 글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키득키득-

×

일범이가 돌아가자 나는 시간표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방안에서 교과서를 꺼내던 나는 그만 놀랐습니다.

맨 처음 꺼낸 교과서뚜껑에 《신은철》이라는 내 이름자대신 《장일범》이라는 두 글자와 범대가리가 그려져있었던것입니다.

일범이는 《장일범》이라는 자기의 이름을 늘 이렇게 쓰곤 했습니다.

《아이쿠, 바뀌었구나. 이 더퍼리가 제 가방대신 내 가방을 가지고갔어.》

나는 그만 화가 났습니다. 늘 이런다니까. 일범이네 집은 다섯개 층이나 더 올라가야 했습니다.

아니, 올라갈수 없어. 그 애 잘못이니까.

나는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 번호판을 툭툭 찌르듯 눌러댔습니다.

《여보시오.》

일범이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껍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더퍼리야. 네 가방을 좀 봐라.》

《가방은 왜?》

《글쎄 보라면 봐.》

《왜 그래?...》

송수화기를 탁자우에 내려놓는 소리가 딱 울렸습니다. 그러더니 한참동안 아무 기척도 없습니다.

《애, 일범아, 일범, 장일범, 장일범학생, 장일범어린이, 장동지!》

별의별 소리로 다 찾아보았으나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내가 속이 불뚝해서 송수화기를 탁 놓는데 부름종이 딸랑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

니 일범이가 내 가방을 들고 함박웃음을 지으며 서있었습니다.

《자, 내 가방을 주렴. 어쩐 이렇게 신통히도 같이 생겨가지고... 꼭 너와 나처럼 쌍둥이같다니까.》

《쌍둥이같기도 하겠다.》

나는 내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온 일범이의 손에 그 애의 가방을 훌쩍 집어주었습니다. 일범이는 히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래일 또 만납시다. 잘있어.》

×

나는 잘있을수가 없었습니다. 래일이 아니라 일범이를 당장 만나야 할 일이 또 생겼습니다. 신발장우에서 낫신 신발을 발견한것입니다.

《이건 도대체 누구거야? 아니? 일범이거구나. 맨발로 가진 앓았을텐데. 아이쿠, 이애가 이번엔 신발을 바꿔신고 갔구나.》

나는 또 전화번호판을 마구 두드려댔습니다.

《넌 전화를 하는거냐, 마스는거냐?》

재봉기를 돌리던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일범이 말이예요. 가방을 바꾸어가더니 또 신발을 바꾸어신고 갔어요.》

《호호호, 참 재미난 애로구나.》

나도 덩달아 피식- 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푹고추마냥 푸르딩딩해져서 전화번호판을 두드려댔습니다.

통화중입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다시 걸어보니 여전히 통화중입니다. 나는 더 참아내지 못하고 일범이의 신발을 신고 문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

내가 일범이네 집에 올라가니 그 애는 팔걸이가 달린 폭신평신했던 걸상에 아주 마음편히 앉아 《애기사슴의 모험》이라는 책을 읽고있었습니다.

《오 은철이, 너 심심해서? 나 보고싶어 왔니? 어서 앉아라. 아주 재미난 책이야. 악어란 놈이 물먹으러 오는 짐승들을 잡아먹자구 물속에서 코만 내밀고 숨어있는데 말이야. 짐승들은 그제 악어의 코 같기도 하



고 나무뿌리인것 같기도 해서 들어갈가말가 하고 망설인단 말이야. 이때 애기사슴이 묘한 피를 생각해냈지 뭐...》

나는 떠들어대는 일범이를 어쨌으면 좋을지 인츰 생각나지 않아 잠자코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애기사슴이 이런단 말이야. 악어의 코끝을 노려보다가 <야, 이놈! 넌 코냐, 나무뿌리냐? 코면 움직이지 말고 나무뿌리면 움직여라. 물을 마셔야겠다.> 아, 이러니까 악어란 놈이 나무뿌리인체 하고 코를 움직였던 말이야, 하하하. 한심한 놈, 나무뿌리가 어떻게 질로 움직이니? 령리한 애기사슴때문에 짐승들은 악어놈에게 잡혀먹히우지 않게 되었어.》

《흥, 참.》

《아니, 너 왜 그렇게 쏘아보니? 재미 없니?》

《악어보다 한심한건 너야.》

《내가 언제 코를 움직였니?》

《코를 움직였대? 신발을 바꾸어갔어. 그리구 저건 우정 내려왔지?》

나는 탁자우에 내려놓은 송수화기를 가리켰습니다. 일범이는 펄쩍 놀랐습니다.

《아니? 저게 언제... 오 진짜, 아까 너와 가방때문에 전화하다가...》

나는 획 돌아서서 나오고말았습니다. 와 당탕 통탕!

x

《장일범이가 아니라 장더퍼리야, 장더필. 1등더필!》

내가 이렇게 투덜대는데 할머니가 또 말씀하십니다.

《체 동무를 두고 그렇게 말하면 못쓴다. 일범이야 좋은 애가 아니냐.》

《그렇지만 그 애때문에 내가 얼마나 수고했나요.》

《수고까지야 뭐. 한번은 일범이가 왔다 갔구 한번은 네가 갔었으니까 같고같구나 뭐.》

할머니가 재봉기를 돌리시면서도 안경너머로 다 보신 모양입니다.

《체, 할머니 그제 일범이편만 들면서...》

할머니는 그러는 나를 가만히 지켜보시더니 《끝-》하고 혀를 찼습니다.

《끝-》

그 소리에 이어 다르르다르르 재봉기소리와 할머니의 타이름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넌 늘 봐야... 일범이가 웅치. 그렇게 타발많은 널 그래도 동무라고... 전번엔 네가 앓을 땐 사과를 가지고왔었지?》

(사과!)

생각났습니다. 이마가 불판처럼 되어 앓고있을 때 사과구력을 둘러메고 눈이 커다라서 찾아왔던 일범이.

나는 그때 눈물까지 찢끔 찼습니다.

아, 나의 장일범, 정다운 내 동무. 그 언제나 영원할 나의 동무!

《어쨌든 더퍼리야.》

나는 영화화면처럼 눈앞에 떠오르는 그 모든것을 잊어버리려고 긴 결상에 벌렁 나가누웠습니다.

책상우의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소년단에 입단하던 날 나와 일범이가 어깨걸고 찍은 사진입니다. 일범이가 싱글싱글 웃고 있습니다.

일범이, 저 앤 단 한번도 나를 싫어한적이 없었지. 동무가 많은 아이, 학급애들이 다 저 앨 좋아하지. 그러나 날 좋아하는 앤 일범이, 유성이, 그밖엔? 무엇때문에?

《그렇게 타발많은 널 그래도 동무라고...》

할머니의 말씀이 귀에 쟁쟁했습니다.

나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랭동기문을 열었습니다. 마침 먹음직스러운 사과가 있었습니다.

x

《우리 집에도 사과가 있는데.》

일범이가 큼직한 사과 두알을 들고 찾아온 나를 보고 하는 말이였습니다.

《안야, 이건... 너에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 언제?》

일범이가 눈이 둥그래서 물었습니다.

《아까 말이야. 내가 너무했어, 네가 더 필더필한다구...》

일범이는 《하하하.》하고 즐겁게 웃었습

니다.

《넌 참, 별걸 가지고 다 그러누나. 난 널
탓하지 않았어. 내가 더퍼리인거야 사실이
거던. 하지만 난 네가 좋아. 공부 잘하지,
짧은 글도 잘 짓지.》

코마루가 찡－ 해진다는 말뜻을 나는 그
때 다시금 느꼈습니다.

일범이의 그 말은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
냥 귀전에 울렸습니다.

《…난 네가 좋아. 공부 잘하지, 짧은 글
도 잘 짓지.》

(짧은 글!)

일범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그 애가 한 말을 되새기던 나는 문득 새로
운 짧은 글을 생각해냈습니다.

나는 국어숙제장을 찾아들고 새로 생각한
그 짧은 글을 또박또박 박아 썼습니다.

《동무의 작은 잘못을 탓하며 밀어던지면
큰 우정을 잃을수 있습니다.》

그러고나니 일범이가 짧은 글을 더 잘 짓
도록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애, 일범이하고 또 뭘 바뀌었냐?》

할머니가 부랴부랴 신발을 찾아신는 나를
기웃이 내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참, 일범인 좋은 애예요.》

나는 일범이네 집으로 막 달려올라갔습
니다.

다섯개 층을 단숨에!